

集合住居形態에 따른 生態學的 環境에 對한 主婦의 反應 調查 研究*

A Study on Homemaker's Reaction to Ecological Environment
in Different Mass-Housing Types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住生活科

教授 尹 福 子
研究助教 金 仙 中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 Sei Univ.

Prof. Bok Cha Yoon(Lee)

Research Assistant Sun Joong Kim

<目

次>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2. 研究目的
3. 假定 및 假說

II. 文獻考察

1. 人間構造環境
2. 人間行態環境

III. 研究方法

1. 道具의 作成

2. 實態調查 및 分析方法

IV. 調查結果 및 論議

1. 調查對象 家庭의 一般事項
2. 假說에 對한 分析 및 論議

V. 結論 및 提言

參考文獻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人間이 품담고 사는 住宅은 家族의 心身發達은 물론 이웃과의 社會的 關係를 造成할 수 있는 環境으로서 人間의 本質을 規定하는 데 重要한 역할을 한다. 第二次世界大戰後 英國의 「처칠」경¹⁾은 戰亂으로 파괴된 國회의사당의 再建이 논의되었을 때 그의 基調演說에서 ‘우리가 建物을 形成하지만 그 後 建物은 우리를 形成한다’라고 言及한 것은 人間이 建築環境으로부터 받는 影響을 매우 含蓄성있게 表現한 말로 解析된다.

그러한 住宅은 最近까지 主로 物理的 次元에서

만 다루어 왔으며, 住宅의 物理的 側面이 建築學的인 立場에서만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人間이 生活해야 할 住宅을 物理的 次元에서만, 또는 社會的 要求의 次元에서만 理解되어져서는 안된다. 같은 環境에서 生活을 해도 그에 對한 態度나 反應은 다르다. 이는 人間과 環境의 相互作用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에 對한 生態學的 研究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最近 住宅形態는 人口의 都市集中, 産業化 등의 都市化에 따라 많은 變化가 있어 高密度·高層化된 集合住宅이 增加되고 있다. 反面 從부터 大地에 密着된 生活을 해 온 人間으로서 가장 願하는 住居形態는 地面에 接한 低層住宅이다.²⁾ 따라서 高層·集合住宅으로 변모된 住宅環境은 人間에게 새로운 環境으로 받아들여져 日常生活에 예기치 못했던 結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問題들의 解決을 위해 새로운 環境인 集

* 本 論文은 1980. 10. 第32次 大韓家政學會 總會에서 發表되었음.

합住居環境에 對한 主婦의 反應을 調査한 後 그 問題點을 찾아 이에 對하여 組織的인 努力을 기울여 解決方法을 模索하려는 意圖로서 本 研究는 實施 되었다.

2. 研究目的

人間行動의 場인 住居環境 中 集合住宅—低層聯立住宅, 中層아파트, 高層아파트 I·II의 住居形態가 生態學的 環境에 對한 主婦의 反應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지에 對해 理解코자함이며, 未來의 集合住宅環境이 보다 人間을 爲한 環境計劃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基礎資料로 提示되고자 함이다. 具體的인 目的은 住居形態에 따라 다음과 같은 生態學的 環境에 對해 主婦의 反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調査하는 데 目的이 있다.

- 1) 生活空間
- 2) 安全性 欲求
- 3) 社會性 欲求(이웃관계)
- 4) 어린이 發達 및 子女保護態度

3. 假定 및 假說

1) 假定

特定한 生活環境인 集合住宅에 사는 主婦들의 生態學的 環境에 對한 反應은 여러 側面에서 考察될 수 있겠으나 生活空間, 安全性 欲求, 社會性 欲求(이웃관계), 어린이 發達 및 子女保護態度에 對한 反應으로 局限하여 物理的 住居環境이 미치는 影響을 住居形態, 即 低層聯立住宅, 中層아파트, 高層아파트 I·II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假定한다.

2) 假說

本 研究에서는 環境에 對한 欲求 反應인 4가지 從屬變數와 獨立變數인 住居形態와의 關係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假說을 設定하였다.

【假說 1】住居形態의 構造環境에 따라 主婦의 生活空間에 對한 欲求反應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2】住居形態의 構造環境에 따라 主婦의 安全性에 對한 欲求反應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3】住居形態의 行態環境에 따라 主婦의 社

會性 欲求(이웃關係)反應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4】住居形態의 行態環境에 따라 어린이 發達과 主婦의 子女保護態度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II. 文獻 考察

環境은 有機體를 爲한 物理·生物學·社會·經濟·政治·審美的 環境의 總合體이고 人間은 環境과 相互關聯되어 있다. 이는 人間과 環境의 相互作用에 關한 研究를 보다 많이 하게 하였으며, 이 제는 이러한 研究가 問題解決의 새로운 方法으로서 認定받게 되었다.⁸⁾

요즘 많은 學問은 人間生態學的(Human Ecology) 領域에서 研究를 試圖하고 있다. 家政學에서도 家庭과 環境의 相互作用을 研究하는 人間生態學이라는 명칭을 使用하면서 다음과 같이 家政學을 새롭게 定義하였다. 즉 ‘家政學은 가장 包括的인 意味에서, 한 側面으로는 人間의 物理的 環境과 다른 側面으로는 한 社會的 存在으로서의 人間과의 相互關係를 研究하는 學問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關하여 Buboltz(1979)⁹⁾ 등은 人間生態系(Human Ecosystem)가 가진 세가지 組織화된 中心概念을 提示하였다. 즉 個人들의 集團(Human Environed Unit), 環境(Environment), 그리고 그들의 相互作用(Interaction)이다. 다시 環境을 3가지로 分類하면 첫째, 自然環境(Natural Environment)으로 地域적으로 形成된 環境이다. 둘째 人間에 依해 形成되었거나 變化된 環境을 人間構造環境(Human Constructed Environment)이라 하며 道路·住居와 같은 物理的 環境이 이에 包含된다. 셋째, 人間行態環境(Human Behavioral Environment)으로써 人間과 人間의 心理 社會的 行動의 環境이다. 이들 세가지 環境은 서로 背他的 關係가 아니며 各各의 內部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聯關을 맺고 影響을 미친다.

1. 人間構造環境

物理的 住居環境이 生活空間과 安全性欲求에 미치는 影響을 考察한다.

1) 生活空間

住居의 高層化에 따른 問題는 심각하다. 高層住宅住居者들에게는 家族結束感의 缺如, 心理의 不安, 孤立感 등으로 인한 精神神經症 症勢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層이 높을수록 顯著하다고 한다.⁶⁾ 즉 物理的 孤立이 社會的 孤立 및 情緒問題를 增加시킨다.⁷⁾

2) 安全性 欲求

傳統的인 住居環境에서는 집에 가까워질수록 安堵感이 커지는데 高層住居環境에서는 團地內 步道, 엘리베이터 등 집에 가까워질수록 不安感이 더하다고 한다.⁸⁾

建物の 높이는 犯罪率에 의미있는 關係가 있다. 콜롬비아大學의 Newman(1973)⁹⁾은 1969년부터 高層團地와 犯罪의 關係에 對하여 研究, 1973年住居形態도 犯罪發生에 큰 影響을 미친다고 報告하였다.

日本の 住宅營團에서 1976年 實施¹⁰⁾한 한 研究에서도 夜間에 歸家하는 高層아파트의 主婦 48名中 31名 정도가 심한 不安感을 느낀다고 報告하고 있다.

2. 人間行態環境

人間行態環境은 心理的 環境으로서 사람들과 集團들의 相互關係와 家族關係를 포함한다. 이에 對하여 本文에서는 社會性 欲求와 어린이 發達 및 子女保護態度에 關한 文獻을 考察한다.

1) 社會性 欲求

高層住居生活에서 야기되는 보다 심각한 問題는 住居의 高層化에 따른 社會的 접촉의 缺如이다.⁷⁾

Mannino(1974)¹⁰⁾는 特定한 環境狀況과 그 곳에서 行해지는 人關의 行動과는 서로 關聯이 있다고 보았다.

권 기준(1975)¹¹⁾의 TV 視聽 傾向에 關한 研究에서 家族의 TV 視聽時間은 單獨住宅 보다 아파트에서 많다고 한다. 이는 餘暇時間을 家族들과의 對話나 이웃과의 社交보다는 「매스미디어」와의 接觸으로 時間을 보내게 되므로 社會性 增進에는 不利한 여건이 된다. 한편 아파트에서 수직동선의 延長은 居住者들의 外部活動을 阻害하며 成人들은 單獨住宅이나 低層聯立住宅에 사는 사람들보다 무로

한 生活을 한다. (이 경희, 1977)⁷⁾

2) 어린이 發達 및 子女保護態度

Kumove(1966)¹²⁾의 調查研究에 依하면 高層住宅에 사는 어린이들은 같은 年齡의 低層住宅의 어린이들에 비해 住宅밖에서 노는 時間이 적다고 하며, 김 경희(1979)⁶⁾ 역시 高層의 어린이들은 讀書能力이 높은 反面 情緒性과 社會性은 낮은 것으로 報告하였다.

子女保護態度에 關해 研究한 Drury(1972)¹³⁾, Hall(1959)¹⁴⁾, 그리고 Becker(1976)¹⁵⁾는 高層에 사는 主婦들은 子女에 對하여 必要 以上の 注意를 기울인다고 한다.

Ⅲ. 研究方法

1. 道具의 作成

實態調查에 使用된 道具는 Drury(1972)¹³⁾의 高層住居生活의 比較 研究에서 使用한 問項과 大韓住宅公社, 박 인덕(1980)¹⁶⁾ 등의 設問問項을 參考로 하여 作成하였다. 專門家에 依한 內容檢證과 豫備調查를 통해 信賴度測定을 한($r=.87$) 本設問紙 內容은 一般事項으로 人口學的 背景과 社會經濟的 背景, 住居狀況등을 調查하는 7問項, 生態學的 環境反應의 調查를 위한 構造環境에 關한 16問項, 行態環境으로는 16問項, 그리고 보충사항조사 7問項 등 總 46問項으로 構成하였다.

2. 實態調查 및 分析方法

1980年 3月 17日~22日에 實施한 調查對象은 人口學的, 社會經濟的 背景이 比較的 類似한 地域을 對象으로 選定基準을 세웠다. 選定된 地域과 分布現況은 다음과 같다. 低層住宅은 禾谷洞 聯立住宅 75世帶, 中層은 盤浦 3團地 住公아파트 80世帶, 高層아파트 I은 蠶室 5團地 住公아파트의 1~5층까지로 64世帶, 그리고 高層 II는 같은 建物の 6~15층까지 70世帶, 總 289世帶를 對象으로 하였다. 分析方法으로는 百分率과 F-test(變量分析), χ^2 (Chi-Square), 회귀분포(Linear Regression)로 統計處理하였다.

IV. 調査結果 및 論議

1. 調査對象 家庭의 一般事項

표집된 289家庭的 人口學的・社會經濟的 背景을 보면 모두 비슷한 同質集團으로 볼 수 있다. 즉, 主婦의 나이는 30代가 大部分이며, 家族數는 4~5名이 約 75%였다. 그리고 家族類型은 核家族이 76%, 長子女의 나이는 平均 10才, 그리고 世帶主의 職業은 事務職이 67%를 나타냈다. 社會經濟的 背景인 主婦의 學歷은 응답자의 94%가 高卒以上이었고 各 家庭의 生活費는 20~40萬圓 사이가 66%를 차지하고 있었다. 住居狀態는 自家가 大部分(84%)이며 集合住宅 選好傾向이 높고 居住期間은 2~4年이 44%였다.

2. 假說에 對한 分析 및 論議

主婦의 反應要因 4가지의 各各 8問項에 對해 點數範圍는 5段階 尺度에 依한 1~5點까지의 點數를 주었다. 그러므로 各各의 反應要因에 可能한 點數範圍는 8~40點까지이며, 點數가 높을수록 環境에 對하여 滿足하게 느끼는 肯定的 反應임을 意味한

〈표 1〉 반응요인 각각의 점수분포

N=289

반응 요인 점수 범위	생활공간	안전성	사회성	어린이발달 및 자녀 보호태도
		육 구	(이웃관계)	n (%)
8~16	n (%) 1(0.4)	n (%) 8(2.8)	n (%) 4(1.4)	n (%) 44(15.2)
17~20	15(5.2)	55(19.0)	32(11.1)	112(38.8)
21~24	62(21.5)	135(46.7)	99(34.3)	79(27.3)
25~28	128(44.3)	84(29.0)	104(36.0)	52(18.0)
29~32	75(25.8)	7(2.5)	45(15.6)	2(0.7)
33~36	8(2.8)	0(0)	4(1.4)	0(0)
37~40	0(0)	0(0)	1(0.4)	0(0)
합 계	289(100)	289(100)	289(100)	289(100)
Mean (\bar{X})	26.4	22.8	24.8	20.1
S.D.*	3.66	3.49	4.07	4.55

F=8.14 P<0.01

*S.D.: Standard Deviation

다. 그 結果 反應要因 4가지에 對한 應答者의 點數 分布 現況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表 1을 分析해 보면, 住居形態에 關係없이 集合住宅 全體의 應答者 反應은 滿足을 나타냈다. 各 要因이 얻을 수 있는 最高點數는 40點이므로 20點 以上을 肯定的 反應으로 보면 21點 以上인 應答者가 生活空間에 對한 反應에서는 92%, 이웃관계에 對한 社會性에는 86%, 그리고 安全性 欲求에는 78%의 比率로 分布되어 있어 環境에 對해 많은 應答者가 滿足함을 보였다. 그러나 어린이 發達 및 子女保護態度는 46%만 滿足에 分布되어 肯定反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 生活空間 欲求

假說 1. 住居形態의 構造環境에 따라 主婦의 生活空間에 對한 欲求反應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1을 證明하기 위하여 F-test를 實施하였다.

그 結果 住居形態別 居住者間의 生活空間에 對한 滿足 反應의 平均은 低層, 中層, 高層 I, 그리고 高層 II의 順으로 住居位置가 낮을수록 높은 滿足을 나타냈으며, 5% 水準에서 意味있는 差異를 보여 假說 1은 肯定되었다. 〈表 2〉

生活空間에 對한 調査에서는 物理的 住居環境要因 가운데 住居形態・混雜・日照, 그리고 프라이버시 要因가운데 空間에서의 空間感・소외감・個人生活 등에 對한 問項을 포함하였다.

2) 安全性 欲求

假說 2. 住居形態의 構造環境에 따라 主婦의 安全性에 對한 欲求反應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2를 證明하기 위하여 F-test를 使用하였다. 住居形態別 安全性에 對한 調査는 低層의 應答者가 가장 높은 滿足反應을 나타냈으며, 高層 II의 應答者가 가장 낮은 率의 滿足反應을 보였다.

〈표 2〉 주거형태별 생활공간에 대한 반응 검증
N=289

반응요인	주거형태	저층	중층	고층 I	고층 II	F
		\bar{X}	27.6	26.6	26.3	
생활공간	\bar{X}	27.6	26.6	26.3	25.4	5.22*
육 구	S.D	2.22	3.59	3.68	3.88	

*P<.05

〈표 3〉 주거형태별 안전성 욕구 반응 검증
N=289

주거형태		저층	중층	고층 I	고층 II	F
반응요인						
안전성 욕구	\bar{X}	23.8	23.1	22.8	21.8	5.11*
	S.D.	2.58	3.08	3.41	3.42	

*P<.05

이에 對한 統計的 유의도는 5% 水準에서 肯定되었다. 〈표 3〉, 이는 住居環境에서 安全하다고 느끼는 程度가 中層과 高層團地에 比해 低層團地의 居住者들에게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져 住居位置가 낮을수록 安全感를 준다고 解析된다.

集合住宅은 周邊環境에 日照防害, 眺望, 프라이버시, 騒音問題 等 情緒不安을 야기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人間의 情緒不安은 心理的 反撥心을 불러 일으키고 그 反撥心은 犯罪心理를 자극하므로 도난과 강도와 같은 犯罪의 防止施設, 高層化와 集合化로 인한 大型火災發生의 危險을 막을 消防施設 등에 對한 居住者의 欲求是 先行研究¹⁾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3) 社會性 欲求

假說 3. 住居形態의 行態環境에 따라 主婦의 社會性 欲求(이웃관계)反應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假說 3을 檢證한 結果 社會性 欲求에 對한 假說은 〈표 4〉에서와 같이 否定되었다. 應答者의 反應은 住居形態에 關係없이 一貫性 있는 肯定反應을 보여주었다. 이는 集合住居團地에서는 單獨住宅에 比해 同質的인 이웃관계가 可能하므로 이웃간의 人間關係에 對한 바람직한 樣相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社會性 欲求에서 集合住居團地가 지니는 肯定的側面을 살리기 爲해서 김진애(1977)¹²⁾의 研究에서 提起된 團地內 社會的 組合에도 關心

〈표 4〉 주거형태별 사회성 욕구 반응 검증
N=289

주거형태		저층	중층	고층 I	고층 II	F
반응인요						
사회성 욕구	\bar{X}	25.3	25.0	24.4	24.8	0.66 N.S.*
	S.D.	3.60	3.85	4.09	3.88	

* Not significant

〈표 5〉 주거형태별 어린이 발달 및 자녀보호태도 검증
N=289

주거형태		저층	중층	고층 I	고층 II	F
반응요인						
어린이발달 달달자녀 보호태도	\bar{X}	21.0	19.9	20.6	20.3	1.14 N.S.*
	S.D.	3.38	4.02	3.99	3.99	

* Not significant

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어린이 發達 및 子女保護態度

假說 4. 住居形態의 行態環境에 따라 어린이 發達 및 子女保護態度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이를 檢證한 結果 假說 4는 否定되었다. 〈표 5〉이 變因에서는 低層, 中層, 高層 I, II 등의 集合住居形態에 關係없이 集合住宅의 全體的인 住居環境이 어린이 發達이나 子女保護에는 否定에 가까운 反應을 나타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空間計劃이나 施設, 그리고 社會機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反影하는 結果로 본다. 또한 主婦들의 子女의 安全에 對한 근심은 住居形態와는 關係없이 一般的인 母性本能的인 것으로 解析된다.

V. 結論 및 提言

1. 結 論

集合住居形態에 따라서 環境에 對한 主婦의 反應 調查 結果는 첫째, 生活空間에 對한 反應은 低層聯立住宅의 應答者가 가장 滿足하고 高層아파트 II의 應答者가 가장 不滿足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安全性 欲求에 對한 反應은 低層聯立住宅의 主婦들이 가장 滿足하고, 高層아파트 II의 應答者 가운데 가장 적은 數가 滿足을 나타냈다. 셋째, 社會性 欲求에 對한 反應은 低層聯立住宅의 主婦들이 가장 滿足하였고, 다음으로 中層, 高層 II, 高層 I의 순이었다. 넷째, 어린이 發達 및 子女保護態度에 對하여는 低層聯立住宅의 應答者가 가장 肯定的이고, 中層아파트의 應答者가 가장 적은 肯定反應을 보였다.

以上的 結果로 볼 때 本 研究에서는 低層聯立住

宅의 住居環境이 가장 滿足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2. 提 言

새로운 住居環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集合住宅이 人間의 生態學的 反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研究는 매우 不振한 狀態이므로 本 研究를 바탕으로 좀더 體系의인 研究, 즉 調査對象者의 擴大, 社會的 要因과의 關聯性 研究, 生態學的 環境을 多樣한 側面에서 研究함등이 기대된다.

또한 未來의 集合住宅建設에는 다음과 같은 考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未來의 集合住宅建設에서는, 生態學的 環境에 對한 反應要因에 높은 肯定反應을 보인 低層聯立住宅團地의 擴張에 힘써야 하며 메스컴은 聯立住宅에 대한 社會認識을 높이는 데 努力이 要請되고 建築家는 住居施設의 技能化, 防災施設의 完備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建築家들은 未來의 居住者들의 心理的 側面을 無視하고 오직 經濟와 土地의 效率性만을 생각하여 人間性에 위배되는 建築設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建築家는 空間을 造成할 때 住居形態, 環境의 問題등이 居住者의 心理的 滿足을 充足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Compton, H.N., and Hall, A.O., *Foundations of Home Economics Research*, Burgess Publishing Co., Minneapolis, 1972.
2. 송장복, “아파트·단독주택 주민의 주거의식 및 형태에 관한 비교”, 건축사, 1979. 6.
3. Hook, N.C., Paolucci, B., “The Family as an Ecosystem,”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2, No. 5, 1970.
4.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Home Economics New Direc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1975. 5.
5. Buboltz, M., Eicher, J., and Sontag, M., “The Family Ecosystem: A Model”, *Journal of Home Economics*, Spring, 1979, pp.28-31.
6. 김경희, “아동과 주택 : 생태(환경)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아동”,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1979.
7. 이경희, “인간 / 환경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건축사협회 학술토론회 (Total Design에 대하여), 1977. 10.
8. 대한주택공사, “고층 주거단지와 범죄”, 주택연구소, 1078. 4.
9. Newman, O., “Architectural Design for Crime Preven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73.
10. Mannino, V.F., “An Ec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Family and Community Relationships”, *Journal of Home Economics*, 1974, 4, pp.10-13.
11. 권기춘, “아동의 Television 시청 경향과 인성요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75.
12. Kumove, L., “A Preliminary Study of the Social Implication of High Density Living Conditions”, Toronto, 1966.
13. Drury, M., “The Family High Rise” Cornell Univ., Ph. D.,
14. Hall, E.T., *The Hidden Dimensio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6.
15. Becker, F.D., “Children’s Play in Multifamily Housing,” *Environment and Behavior*, 1976, 8, pp.545-574.
16. 박인덕, “한국 가정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0.
17. 김진애, “도시근교 주거에 있어 인구의 사회적 구성에 의한 사회적 융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77.